

코로나시대 취약계층 교육은 더 힘겹다

도내 초·중·고생 6600여명 스마트기기 無 원격수업 듣기 힘든 학생 실태조사도 없어

코로나19로 제주 학교에 '원격수업'이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7만8000여명 가운데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제외)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6614명(8.4%)에 달했다. 이는 앞서 3월에 확인된 6127명보다 487명이 늘어난 것으로, 도교육청은 3월 조사 때 '스마트폰'

을 갖고 있는 학생도 스마트기기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에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전체 0.4%에 해당하는 345명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미보유 학생 6614명 중 교육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은 2204명(33.3%)에 달했으며, 인터넷 미설치도 345명 중 134명(38.8%)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태블릿PC 6960대 등 스마트기기를 확보, 학생

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도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인터넷 설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면 맞벌이와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원격수업을 제대로 듣기 힘든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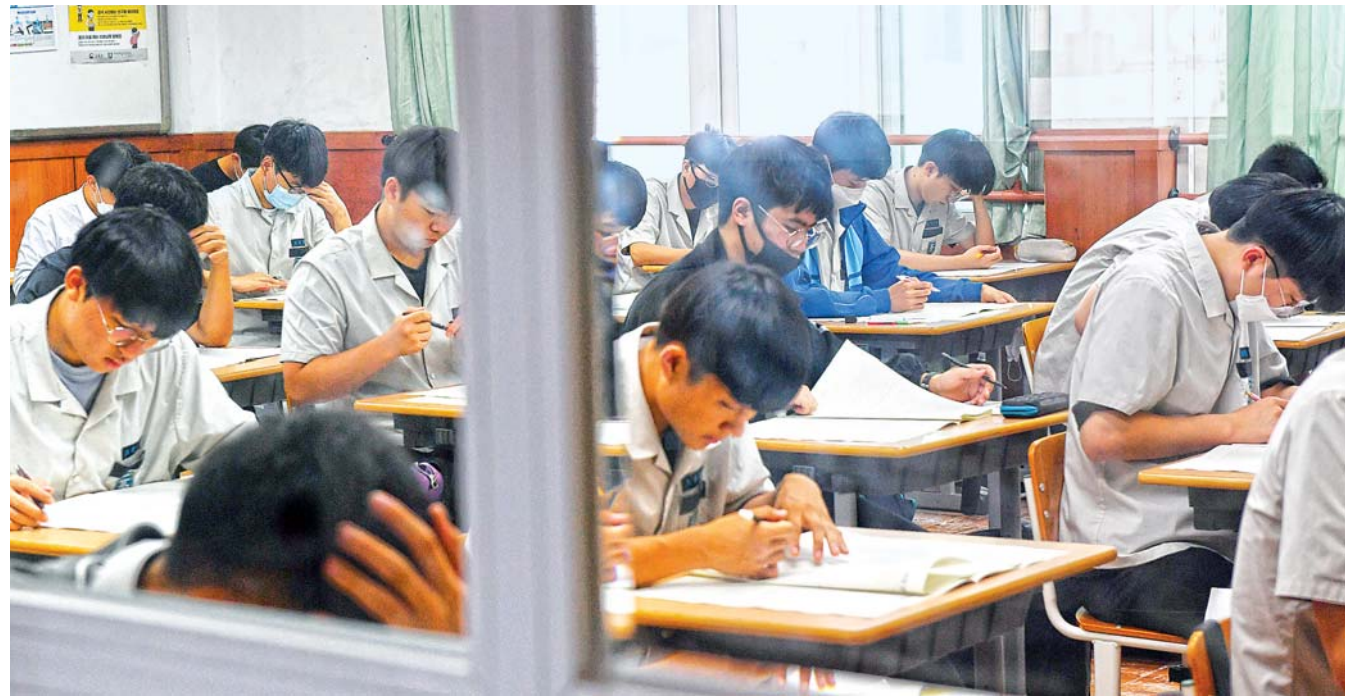
홀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A(43·여)씨는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날에는 70대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겨 일을 나간다"며 "하지만 아이가 스마트기기에 익숙치 않은 할머니에게 공부를 한다고 속여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이 때문에 아이에게

흔을 내고, 부모님과 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 지원단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또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16일 제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어제 수능 모의평가 도내 학생 6071명 응시

오는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가 치러졌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30개 학교에서 6071명의 학생들이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렀다.

이번 모의평가 난이도는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학생과 재수생,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클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송은범기자

“버티기 힘들다”... 영세음식점 폐업 급증

제주시 지역 업소 8월까지 424곳 문 닫아... 전년보다 24% 증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충격에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영세음식점의 폐업이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집 걸러 한집일 정도로 우후죽순 들어서던 커피점 등 휴게음식점의 신규 창업도 줄어들어 예년에 견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폐업한 일반음식점은 42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2곳)에 비해 23.9% 증가했다. 이 기간 신규 음

식점은 647곳으로 지난해(747곳)보다 13.4% 감소했다. 신규 음식점이 1년 전보다 감소한 상황에서도 폐업은 오히려 증가해 코로나19 충격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시 소재 일반음식점 창업은 2017년 1009곳, 2018년 1039곳, 2019년 1071곳으로 최근 3년동안 큰 변동없이 1000곳대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왔다. 하지만 폐업은 2017년 368곳, 2018년 437곳, 2019년 529곳

으로 해마다 100곳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던 데서 울어들어 8개월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8월 제주도에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2만4000명)에 비해 20.8%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가 많다는 것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원 없이 무급가족에 기대

어렵게 꾸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커피점·커피점·패스트푸드점 등의 휴게음식점 창업도 감소세다. 올 8월까지 제주시 소재 신규 커피점은 371곳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62곳) 대비 19.7% 감소했다.

신규 휴게음식점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 경기 활황세와 맞물려 2017년 526곳, 2018년 566곳에서 2019년에는 658곳으로 최근 몇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울어들어서는 창업이 주춤한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평소에도 창업과 폐업이 잦은 업종이긴 한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주 초중고 등교수업 완화되나

수도권 21일부터 등교 재개 도교육청 “빠르면 오늘 발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한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밀집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경기·인천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을 이번주로 끝내고 오는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수도권을 포함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제한된다.

또 대학입시로 매일 학교에 갔던 고3의 경우는 이번주 수시모집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되면서 21일부터는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등교수업 제한을 완화하

면서 제주도교육청도 보다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확정된 학사일정은 ▷도내 모든 초·중학교 학생 1/3 등교수업(초 1~2 매일 등교) ▷도내 모든 고등학교 2/3 등교수업(고 3 매일 등교) ▷도내 초·중·고등학교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는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 조치 가능 ▷유치원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 조치 가능(단 7학급 이상은 반드시 2/3 밀집도 조치)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6일 2차례 걸쳐 학사일정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초등학교 밀집도를 1/2로 완화하는 등 이전보다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빠르면 17일쯤 구체적인 학사일정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끔찍마”

제주시 차량 조회·과태료 부과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제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대량정보유동시스템 ▷그린우편 등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고·단속되는 위반차량의 소유주 확인부터 과태료 부과, 우편 발송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시는 담당직원 2명이 월 평균 900여건의 위반신고에 대해 위반사실 확인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작성, 우편발송까지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면서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과태료 부과 고지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시는 올해 8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6357건(6억4926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해 이중 4547건(4억3644만원)을 징수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입도 中 유학생 39명 전원 코로나 '음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입도한 중국인 유학생 39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9시20분쯤 김포발 항공편을 이용해 이날 오후 10시20분쯤 입도한 중국인 유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 내 위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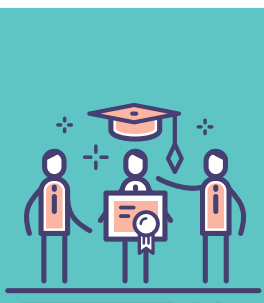
중국인 유학생 39명은 검체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수송차량을 이용해 대학

측에서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15일 오후 2시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전원 음성판정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14일 간의 격리에 들어갔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입도하는 즉시 제주국제공항 내 위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간의 자가 또는 시설격리 기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Better Choice, Better Life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2021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의 꿈, 믿을 수 있는 국립제주대학교에서 시작하세요.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및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가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건강복지향상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수능을 보지 않고 서류전형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지?” 걱정마세요. 미래융합대학은 수능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자연과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학과 설립과 4차 산업 사회에 발맞춘 커리큘럼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혜택과 야간 및 주말강의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수강(e-Learning) 및 야간·주말강의로 학습의 기회를 더 넓혔습니다.

재직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미래융합대학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에도 용이하지만 재직자들이 심화학습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2020. 9. 23(수) 09:00 ~ 9. 28(월) 18:00

접수방법 온라인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ac.kr>) (주)유웨이애플라이(<http://www.uwayapply.com>)

오프라인 제주대학교 본관 1층 입학관리과

문의 입학관리과 T.(064)754-2043~5, 8238, 3990~5
미래융합대학 행정실 T.(064)754-3901~2, 3904~6

